

계열사 지원 배제... 그룹후광 따른 등급 '뺑뺑기' 막는다

개별기업 독자신용 평가의 명암

㉠ 제2의 한진해운 사태 막는다

신용평가사 '뒷북 강등' 지적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작아"

지난 2016년 9월, 한진해운 신용등급은 9단계나 하락하면서 결국 부도를 나타내는 최하위 'D등급'으로 추락했다. 이 회사 신용등급은 이전 4년 동안 A-(2011년 말)에서 BB+(2015년 말)로 4단계 하락하는데 그쳤다. 한진해운이 2011년 이후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내고 2014년과 2015년에도 영업이익률이 0.5%를 밑돌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했던 점을 감안하면 신용평가사의 '뒷북 강등'이란 지적이 적잖았다.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건 모기업 한진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감안한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BB+ 신용등급을 받고 회사채를 산 투자자들은 적잖은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다.

올해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개별 기업의 독자적 재무상환 능력만 따져 매기는 '자체신용도'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룹의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신용등급이 뺑뺑기되다가 그룹의 꼬리 자르기로 등급이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

◆대기업 계열사 신용도 고평가?

4일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계열 통합 신용도가 높고 계열 통합 신용도 대비 소폭

계열사들의 자체신용도 차이가 큰 SK(64.7%), 현대자동차(69.2%), 삼성(80.0%), LS(66.7%) 그룹의 등급 상향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SK그룹은 전체 17개사 중 11개사로 상향 조정된 기업이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는 13개사 중 9개사, 삼성은 5개사 중 4개사, LS는 3개사 중 2개사가 상향됐다. 이외에도 엘지(7개사), 롯데(4개사), 한화(4개사)그룹 등의 계열사도 신용 거품이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삼성, LG, KCC 그룹에서는 2단계 상향된 계열사도 있었다. 두산그룹은 1개사가 등급이 하향된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별로는 계열과의 사업·재무적 긴밀성이 높은 호텔(66.7%), 조선(50.0%), 종합건설(47.6%), 자동차부품(44.4%) 등의 등급 상향 비중이 높았다.

나이스신용평가 최정기 기업평가 1실장은 "계열의 통합적인 신용도가 높아 지원능력이 우수하며, 개별 계열사의 자체적인 신용도와 계열의 통합적인 신용도 간의 차이가 큰 회사가 다수 존재할수록 그룹의 등급 상향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 영향은 크지 않다

체계는 무더기 신용강등을 걱정한다. 신용등급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향후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들은 당장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신용평가 업계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한국신용평가 김용건 실장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별 회사의 자체신용도가 공개되면

신용도에 대한 시각차가 부각될 수 있다"면서 "이 정보는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 김상만 연구원은 "그룹별로 보면 SK, 현대차, LG 등 국내 굴지의 초대형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들에 대한 등급조정 비중이 높다. 하지만 등급조정이 된 경우에도 대부분(92.1%)의 경우 한 등급조정에서 그쳐 초우량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라도 개별회사의 자체적인 신용도와 그룹의 통합적인 신용도 간에 (그룹의 후광효과로 인한) 간극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 과거 신용의존성이 급격히 변한 경우는 경성적인 상황이 아닌 인수합병(M&A) 이벤트, 계열의 부실기업 지원 중단 사태 발생 등의 경우에 나타났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은 2016년 8월 SK 계열로의 매각추진에 따른 사업적 중요성 저하 및 매각 가능성 증대로 신용의존성이 하락했다.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대우)은 포스코플렉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유사시 ㈜포스코의 계열 지원 가능성이 저하된다는 평가에 2015년 7월 신용의존성이 떨어졌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원은 "외부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추세여서 회사채 시장의 투자자들은 자체신용도를 리스크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나친 줄세우기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면서 "하지만 자체 신용도 평가가 정확히 이뤄지기만 한다면 회사채 시장의 신뢰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려 장기적으로 시장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그룹별 신용등급 조정 수준)

그룹명	1등급 하락	등급 조정 없음	1등급 상승	2등급 상승	등급 상승 비중	합계
케이티		1	1		50.0%	2
에스케이		6	11		64.7%	17
현대자동차	4	9			69.2%	13
롯데	7	4			36.4%	11
삼성	1	3		1	80.0%	5
엘지		6	7	1	57.1%	14
신세계		3	2		40.0%	5
포스코		4	1		20.0%	5
지에스		4	3		42.9%	7
씨제이		4	1		20.0%	5
케이씨씨		1		1	50.0%	2
대림		3			0.0%	3
엘에스		1	2		66.7%	3
한라		1	1		50.0%	2
한화		7	4		36.4%	11
세아		3			0.0%	3
현대산업개발		1	1		50.0%	2
한솔		2	1		33.3%	3
현대중공업		2	1		33.3%	3
코오롱		2			0.0%	2
두산	1	3	1		20.0%	5
태영		2			0.0%	2
한진		2			0.0%	2
이 외 그룹	1	16	5	0	22.7%	22
그룹소계	2	86	58	3	40.9%	149
합계	2	177	58	3	34.5%	240

*2017년 11월 말 NICE신용평가 회사채 및 기업신용등급 기준 (공기업, 지주회사 제외 기준).

**NICE신용평가 산업위원 평가 대상 산업 기준.

NH투자증권-포인트엔지니어링

코스닥 상장 주간사 계약 체결

NH투자증권은 포인트엔지니어링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코스닥상장 주간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포인트엔지니어링은 현재 코넥스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1997년 설립되어 LCD 및 반도체의 주요 소재와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회사다. 2016년 42억원의 영업이익과 32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2018년에도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예비실사를 시작으로 상장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포인트엔지니어링 CFO인 최인준 이사는 "고객들은 주문 증가로 LCD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규로 확대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의 매출 활성화로 2018년에도 꾸준히



NH투자증권 정영채 이사(오른쪽)와 포인트엔지니어링 안범모 대표가 상장 대표주간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성장세를 유지해 이를 바탕으로 연내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조광재 상무는 "회사의 꾸준한 성장성과 안정적인 실적을 감안할 때 금년 중 좋은 조건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수도권 마수걸이 분양... 1만2310가구 풀린다

강남·과천·김포·하남 등

새해 마수걸이 분양이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된다. 서울 강남과 경기도 과천, 김포, 하남지역의 물량이 많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14곳, 1만231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10곳, 8482가구 ▲서울 1곳, 1996가구 ▲인천 3곳, 1832가구 규모다.

경기도 김포에서는 금호건설이 포문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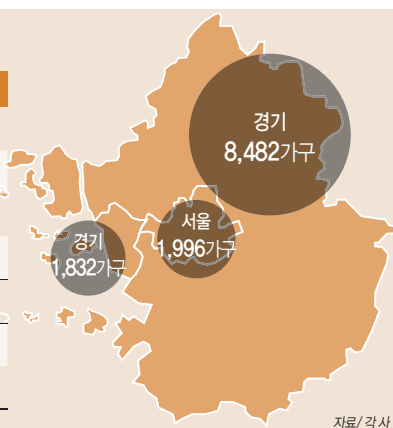
금호건설은 이달 초 한강신도시 생활권인 김포 양곡택지지구 1단지(D-1블록), 2단지(B-2블록)에서 '한강 금호어울림' 2개단지 59~84㎡, 873가구를 분양한다. 한강신도시 생활권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CGV 등이 인접해 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로 3.3㎡당 900만원대로 낮췄다"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및 발코니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과천에서는 이달 과천주공 7-1단지 재건축 단지가 공급된다. 대우건설은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 7-1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씨밋'

1월 수도권 마수걸이 주요 분양물량

지역	단지명	업체	가구수
경기	한강 금호어울림	금호건설	873가구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씨밋	대우건설	1,317가구
	하남 포웰시티	현대건설	2,603가구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37가구
	부평 코오롱하늘채	코오롱글로벌	922가구
인천	부평 화성파크드림	화성산업	541가구



자료/각사

59~159㎡, 1317가구 중 57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4호선 과천역이 단지와 바로 연결된 역세권 단지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 59~84㎡ 537가구를 분양한다.

경기 하남에서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이 이달 경기 하남 감일지구 C2블록, C3블록, B6블록에서 '하남 감일 포웰시티' 73㎡~152㎡, 2603가구를 분양한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개포8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포문을 연다. 현대건설과 GS건

설은 이달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가칭)'를 분양한다. 59~127㎡, 1996가구 중 169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인천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이달 인천 부평 부개2동 부개인우구역을 재개발한 '부평 코오롱하늘채'를 분양한다. 34~84㎡, 922가구 중 550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반경 1km내에 서울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있으며 단지 인근으로 7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위치한 트리플역세권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미래에셋대우

연금자산 10兆 돌파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기준 증권업 최초로 퇴직연금 7조 6911억원, 개인연금 2조 5331억원으로 연금자산 잔고 10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말 대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각각 1조 1294억원, 4433억원 증가한 수치로 증권업계에서 연금자산으로 1위 규모다. 연금자산 10조원 돌파는 미래에셋대우가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으로 고객에게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한 것이 주요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퇴직연금사업자 최

초의 랩카운트 서비스인 '글로벌 자산배분 퇴직연금'을 출시하는 등 균형잡힌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투자솔루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용역량을 강화해 온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최근 1년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에서 적립금 상위 10개사 중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익률 3분기 연속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남근 미래에셋대우 연금본부장은 "앞으로도 미래에셋대우는 준비된 연금전문가로서 차별화된 글로벌 자산배분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모바일스타론' 서비스

KB증권은 업계 최초로 '모바일스타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스타론은 고객이 증권계좌에 예탁된 자산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의 여신기관

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온라인 대출 서비스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C 접속을 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어 필요한 시점에 자금신청이 원활하게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온 했다.

KB증권의 '모바일스타론'은 MTS 앱인 'M-able'에 스타론 메뉴를 신설,

모바일 시스템을 갖춘 제휴 여신기관 상품(KB손해보험, NH캐피탈, DGB캐피탈)을 편입해 PC접속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한 대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스타론 계좌현황 조회 및 대출가능금액 조회 기능 등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김문호 기자